

2010 년 가을 학기
전 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

메시지 10

복음서에서
(10)

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분,
영광스럽게 되신 사람의 아들,
삼일 하나님의 체현—아버지의 집
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

성경: 요 13:1, 3-10, 31-32, 14:2-3, 6, 20, 23

I.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분이시다—요 13:3-10.

- A. 주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셨다.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—1, 3, 5 절.
- B. 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과의 교통을 유지하고 그들 서로간의 교통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—8, 10 절.
 - 1. 거듭난 이들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지만, 우리의 몸 안에서는 여전히 육체 안에 살며 땅 위에 행하여 땅에 속한 것들과 접촉하면서 자주 더러워진다. 그러므로 우리는 발을 씻는 것이 필요하다—5 절.
 - 2. 주 예수님께서서는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(5 절). 여기에서 물은 성령(딤후 3:5)과 말씀(엡 5:26, 요 15:3 과 생명(19:34)을 상징한다.
 - a. 주님은 성령의 일하심과 말씀의 비추심과 생명의 내적 율의 운행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씻으신다. 성경에서 이것은 각각 물로 상징되어 있다.
 - b. 죄 된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피로 씻는 것이 필요하지만(요일 1:7), 죄 된 것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는 영적인 씻음이 필요하다.
 - c. 우리가 주님과 즐거운 교통과 서로간의 즐거운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, 또한 우리들 서로가 사랑 안에서 영적인 발 씻음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. 이것은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—요 13:1, 5, 8, 14.

II. 요한복음 13 장 31 절-32 절에서 그리스도는 옛 창조물을 끝내는 죽음을 통과하시고(12:23-24, 갈 6:14) 새 창조물이 되는 그분의 번성을 위해 부활 안으로 들어가시는(15 절, 고후 5:17), 영광을 받으신 사람의 아들로 계시되신다.

- A.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시는 것, 즉 그분의 신성한 요소, 신성한 생명이 그분의 인성의 껍질 속에서부터 해방되어 부활 안에서 많은 믿는 이들을 산출하시는 것이다—요 12:23-24.

- B.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의 인성의 껍질을 깨뜨렸을 뿐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해방했다. 그것은 또한 옛 창조물을 끝냈고,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시켰으며, 우리를 새 창조물 안에서 살 수 있게 했다—갈 6:14-15.
- C. 갈라디아서와 함께 요한복음은, 영광을 받으신 사람의 아들이로서 그리스도께서 옛 창조물을 끝내기 위해 죽음을 통과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구성된 새 창조물이 되는 그분의 변성을 위해 부활 안에 들어가셨음을 밝힌다—12:23-24, 13:31-32, 20:17.

III. 요한복음 14 장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집이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심을 밝힌다.

- A. 아버지의 집은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된 사람들의 연합을 상징한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호 거처이다—2, 20, 23 절.
- B. 아버지의 집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가심—그분의 죽음—과 오심—그분의 부활—을 통해 그분의 믿는 이들과 함께 확대되시어 하나님의 충만(하나님의 충만한 표현인 그리스도의 몸)이 되신 것이다—2-3 절, 엡 3:19.
 - 1. 먼저 하나님의 거처인 아버지의 집은 다만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몸이었지만 (요 2:16, 21),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은 그분의 부활을 통해 거듭난(벧전 1:3)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한 교회인 그분의 단체적인 몸으로 증가되었다.
 - 2.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의 믿는 이들과 함께 증가되시어 아버지의 집—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호 거처—이 되셨다—요 14:2, 20, 23.
- C. 요한복음 14 장 4 절-6 절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, 즉 사람이 아버지 안으로 가는 길이심을 계시한다.
 - 1. 3 절과 6 절은 아들 그리스도가 길이시고, 아버지가 그 ‘곳’(목적지)이심을 계시한다. 그러므로 길—아들 그리스도—과 그 곳—아버지—은 다 살아 있는 인격이시다.
 - 2. 길이신 아버지는 그분의 모든 존재와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지니신 육체 되신 하나님을 상징한다—1:1, 4, 14, 29, 51.
 - 3. 우리가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길은 그분의 구속을 지니신,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—14:2-3, 히 10:20.
 - 4. 길은 그리스도 자신인 실재가 필요하다—요 14:6.
 - a. 그리스도는 신성한 것들의 실재이시다. 이 실재는 그분을 통해 왔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재화가 되신다—1:14, 17.
 - b.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영접하는 실재는 삼일 하나님의 존재이며 삼일 하나님의 행하심이다—롬 10:13.
 - 5.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실재를 가져오시고, 실재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들어가기 위한 길이 된다—요 14:6.
 - 6. 거듭남을 통해 받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재에 참여한다. 그리스도의 실재는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아버지의 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한 길이다—2 절, 계 21:2.